

#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明會  
 編輯人 金崙會  
 發行處  
 서울·東大門區徽慶洞112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  
 電話: 244-3717  
 對替口座: 서울513119番  
 私書函: 서울清涼洞遞局1375



安東金氏 中始祖  
 高麗國都元帥上洛君忠烈公  
 諱金方慶 尊影

## 創刊辭

會長 政治學博士 明會

一九六八年十一月三日(月)에 우리 안동금씨의有志 三百餘名은 서울宗廟에서 안동금氏大宗會의 시를 뿌린지於今 十五년이 되었습니다.

그 후 十年間은 어려운 逆境속에서 그 命脈만을 이어오다 가 一九七九年에 와서 비로소 歷史的 中興을 이루었으니 이 는 二年前에 乙亥大譜에 이 어 四十四年만에 第八次大同譜의 巨大한 事業을 마치고 또 子孫萬代로 相傳할 수 있는 雄壯하고 華麗한 會館도 마련해 서 風前燈火처럼 아불거리는 大

宗會의 基盤을 굳건히 하였고 一九八二年에는 忠烈公先祖의 齋室境內에 影幀閣을 建立해서 上님의 靈魂이 담긴 數十萬尊 嚴하신 影像을 平安히 모셨 고 松谷洞 齋室도 아담하게 重 修하였읍니다. 한편 大同譜의 補充出版으로 貴重한 資料를 蒐集해서 世系年鑑도 刊行하여 頒 帙하는 段階에 있어온데 이는 鞏固한 磐石 위에서 不知天涯 에 散在하고 水陸萬里 異域의 宗會의 시를 뿌린지於今 十五 年이 되었습니다.

그 후 十年間은 어려운 逆境속에서 그 命脈만을 이어오다 가 一九七九年에 와서 비로소 歷史的 中興을 이루었으니 이 는 二年前에 乙亥大譜에 이 어 四十四年만에 第八次大同譜의 巨大한 事業을 마치고 또 子孫萬代로 相傳할 수 있는 雄壯하고 華麗한 會館도 마련해 서 風前燈火처럼 아불거리는 大

(非賣品)  
 이 會報는 通常會費 年間 1千원 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償으로 配付 하오니 未納入한 宗親께서 是 빠짐없이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鞭撻을 繼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大宗會에서는 宗親들의 希冀의인 公論에 依해서 (大宗會報)의 創刊號를 晚時之歎이나마 여러분 앞에 올 리게 된것을 無限의 기쁘고 榮光스럽게 生覺합니다. 이 會報가 비록 좁은 紙面이나마 相互 間에 通信交流와 知識相傳의 源 泉이 되어서 先祖의 勳功業績 을 더욱 研究하고 涵養하고 宣 揚함으로써 宗親의 精神을 培 養할 수 있고 이 紙面을 通해 서 서로의 消息을 傳할 수 있 음으로서 遠隔의 宗親일지라도 門戶의 거리의 더욱 가까와져 愛族의 情、또한 두터워질 것 이요、相扶相助의 氣風이 振作 될 것입니다.

오늘도 曇雲은 三千里江土를 뒤덮고 狂電은 五洋六洲를 振 動시키며 그 무서운 暴風雨라 도 몰아칠듯、恐怖와 危險의 度 는 날이 갈수록 더 해지고 있 습니다. 이러한 風潮는 우리 宗親으로 하여금 團結의 時急 함을 警告하는 것 같습니다. 우 리 宗親들은 寸隔의 離間도 있 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 한 世態일수록 우리 宗親間은 더욱 믿고 사랑하며 또 뭉치고 團結해서 世人의 앞에 規範이 되고 崇祖愛宗의 龜鑑이 될 때 先祖의 蔭德은 福이 되어서 우 리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花樹同春이란 말이 있습니다. 春秋가 迭代하고 四時盛衰가 있더라도 花樹는 同春發입니다.

우리 族親들은 忠烈公先祖의 血統을 내려받은 血孫들이기 때문에 先祖께서 보실때 子孫 을 사랑하시는 慈情은 貧富、貴 賤을 超越하신 德化를 베푸실 것이니 우리 後孫들이 서로 和睦하지 못할 때 先祖의 震怒는 免치 못할 것이며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또 믿고 도우 며 산다면 自然히 敬祖의 精誠 이 생길 것이요、祖上님께서는 더욱 예쁘게 보시고 한결 같이 사랑하시고 많은 福을 주실 것 입니다. 이제 大同譜와 世系年鑑의 大役도 마무리졌고 또 雄壯 한 會館도 마련되었으니 지금 부터 우리 族親들은 이 會報를 통해서 더욱 發展할 수 있는 기틀이 되고 터전이 된다면 우 리 宗中으로서 는 보다 더한 多 幸이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 族親께서 所藏 하신 先祖들의 書翰、遺稿나、文 學의 創作品 教養 藝能、美談 生活手記等 多方面의 投稿을 歡 迎하오며 여러분의 正성어린 作品을 한데 모아서 우리의 會 報가 無窮하게 發展할 수 있도 록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이 會 報가 狹少한 紙面이나마 祖上 의 業을 담고 그 많은 後孫들 의 正성이 담긴 貴한 文獻이오 니 所重히 保存하시며 後日의 子孫들로 하여금 先史研究의 一 端이 될 수 있고 또 배우고 익 힐 수 있는 資料가 되리라 믿 고 이를 懇曲히 부탁하면서 創 刊에 즈음하여 所懷의 一端을 披瀝하는 바입니다.

(小部隊)를 과전하는 데 그치기 로 약속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이 되고 가을꽃이 피면 이는 分明히 變怪 합니다. 같은 꽃은 千里 밖에 서도 같은 時期에 같은 꽃이 피 며 그 結實 또한 같은 것입니 다.

圖書를 寄贈해 주신분들

- ▲龜石樓三壯士史蹟文獻集一 卷 서울中區 太平路二街一九九 濟州高氏宗親會 ▲寧海朴氏 世 鑑二卷 東大門區 典農洞五九 七一四二 寧海朴氏大宗會 ▲淵 淵堂文稿一卷 全北高敞郡高敞 邑道山里 同好樓·金永約 ▲安 東金氏一門四忠史蹟一卷 忠北 鎭川郡 鎭川邑土石里 金榮煥 ▲ 濟庵集四卷合本 慶北義城郡點 谷面 沙村洞 金永會 ▲豐壤趙 氏世錄三卷 서울中區 中林洞二 四四 豐壤趙氏 花樹會 ▲光山金 氏 總制公脈譜一卷 서울城北 區 貞陵三洞 七一—一四號 金賢 洙 ▲大韓忠義孝烈錄二卷 서울 鍾路二街三二 任文鎬 ▲孤忠 誌一卷 忠北清原郡梧倉面慕亭 里 永慕齋 ▲龜庵集一卷 忠北 槐山郡槐山邑陵村里 金相馨 ▲南峰集一卷 全人

### 賢祖名訓

子孫이 어질면 國家에서 스스로 불은은 것이요 子孫이 어질지 못하면 벼슬을 얻 어도 이를 감당(勘當)하지 못하느니라.

(貞簡公諱 永煦)

職名	姓名	備註
會長	翼元公派	明會
副會長	正儀公派	書默
副會長	提學公派	相均在
副會長	翼元公派	泰亨
常務理事	按廉使公派	崙會
常任監事	按廉使公派	卿辰會
監事	提學公派	相蒙在
總務部長	按廉使公派	斗會
組織部長	提學公派	相煜在
事業部長	翼元公派	喆會
財政部長	開城尹公派	賢潤(教)
管理部長	按廉使公派	崙會
出版部長	都評議公派	元榮會
渉外部長	提學公派	穆應
理事(常) 〓 常務理事		
密直使公派	在沼	履範(植)
都事公派	載鴻(默)	都事公派
典書公派	在文	副使公派
大司成公派	喆會	大司成公派
都評議公派	壽鳳(榮)	都評議公派
大護軍公派	在均	判三司公派
提學公派	相祺在	提學公派
按廉使公派	國寶在	按廉使公派
按廉使公派	洙萬(泰)	按廉使公派
翼元公派	振台在	翼元公派
翼元公派	名會	
翼元公派	昌會	
翼元公派	龍吉(容)	
翼元公派	在錫	
翼元公派	相勳在	
翼元公派	明會	
翼元公派	會秀(會)	







### 崇義殿 沿革

崇義殿은 京畿道 漣川郡 嶺山面 麻田에 자리잡고 있으니 이곳은 正殿에 高麗太祖(王建)을 비롯해서 顯宗·文宗·元宗의 四代王을 모시고 忠臣閣에는 高麗功臣을 配享하고 每年 陽4月20日과 10月20日에 享祀를 지내는 곳이다. 이곳에 配享된 高麗功臣은 太師 開國 武恭公 卜智謙을 비롯해서 16賢인대우리의 先祖 忠烈公은 第12位에 奉安하였으니 이는 年代順으로 安置한 까닭이다(己未 大同譜一卷266頁 參照).

이 崇義殿의 創建由來는 高麗王建太祖가 建國하기 前에 이곳의 仰岩寺에서 자주 놀았는데 創業의 뜻을 품고는 所願을 祈禱하는 願利로 삼았는데 高麗가 亡한 後에 太祖의 影蹟이 그 절에서 나와서 이곳에 祠堂을 지었다고 하고 또 一說에는 李太祖가 가까운 고을 壯丁들을 人夫로 動員해서 高麗太祖의 祠堂을 麻田縣에 지었다고도 한다.

傳說에 依하면 이 祠堂을 세우려고 할 때 太祖가 寺僧에게 여러번 顯夢하기에 중들이 異常히 생각하고 佛像과 제반 器物을 옮기고 나니 風雨가 크게 일어나고 寺院은 부서져서 江물 속으로 떠내려 가버리니 그곳에 太祖의 祠堂을 지었다고 한다.

記錄에 依하면 祠堂은 그후로 西紀 1595年(宣祖9年)에 京畿監司 李廷龜가 重修하였고 1789年(正宗己酉)에는 京畿道 觀察使 王鼎修가 本殿을 重修했는데 壬辰倭亂때에 倭賊들이 아무리 불을 질러도 타진 곳이 없었다 한다. 또 1868年(高宗 戊辰)에는 松都留守 王衡淳이 重修를 하였고 1908年(隆熙 戊申)에는 麻田郡守 王羽淳이 補修를 했는데 그후 日帝 36年間은 若干의 工事を 累次했으나 1928年에 本殿參奉 王永祐가 크게 補修하였다. 그러나 解放이 되자 이 地域이 3·8 線에서 北으로 五里밖에 位置하여 北韓治下에 있었고 6·25 動亂中에는 外國軍이 敵의 隱避處로 誤認하고 불태웠는지? 或은 破屋해 버렸는지? 形態조차 없었는데 1970年에 王氏宗에서 復元을 請願하여 政府에서 資金을 補助하여 1974年에 겨우 正殿만이 竣工되었다.

아직도 未盡되고 아쉬운 일은 忠臣閣의 復元復享이 남아있다. 이는 配享되었던 16賢의 後孫들이 鳩謀合力하여 早速히 復享의 날을 기다리는 마음 懇切하다. (元榮 記)

## 祝 族睦祖尊

명(名)의 주는 지대로 되어 있어 그 양상(樣相)은 일변하였다. 민(民)가에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이 고 거리에선 점포가 많이 늘어 서서 융성하였다. 거기에 주민들 하고 있는 몽고부대는 잡다(雜多)한 종족(種族)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거란인(契丹人)이 있는가 하면 여진족(女真族)도 있고 몽고에 귀부(歸附)한 고 려인도 있었다. 거리의 주민들 도 또한 그리하였다. 거리에는 고려인의 독특한 높은 목소리 에 섞여서 어느 나라의 말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말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다. 의주(義州) 를 거쳐 알뜰함을 진냈다. 압록강을 건너니 모든 풍물(風物)은 일변하여 오로지 타국 땅이 었다. 낮에는 성하(盛夏)의 무 더위였으나 조석으로는 가을기 분을 느끼는 찬 기운이 감돌았 다. 의주에서부터는 매일과 같 이 행진이 계속되었다.

전(傳)은 자가 목척하고 있 는 몽고황제 현종(蒙古皇帝 憲宗)의 소재지가 어떠한 곳인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다. 현종이 몽고의 수도 화림(和林)의 왕궁에 있는지 혹은 송(宋) 나 라와의 전투에 출정하여 자기 들이 그 출정지에 끌려가고 있 는 것인지 예상조차 할 수 없 었다. 전(傳)일행을 안내하고 가는 몽고의 무장(武將)으로서 도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심 히 의아스러웠다. 통과하는 각 역(各驛)에서 지령을 받아가지 고 가는 것같이 보였다.

동경(東京:遼陽)에 도착한 것은 五월 一八일이었다. 동경 에 들어가기 전에 호천(虎川)을 건넜는데 그때 큰 비가 내리서 강물이 불어서 이세계(李世傑)가 는 아뢰기를 물이 빠지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였으나 전(傳) 은 앞을 다투어 빨리 갈 마음 으로 억지로 강을 건너기를 주 장하였다. 안내역의 몽고 무장 (武將)도 전(傳)에 동의하였다. 동경에 들어가니 성내에는 대 병단(大兵團)이 주둔하고 있어 다음날 곧 고려로 향하여 진발 (進發)하려고 하는 차제였다. (一頁에 계속)

# 風濤 (1)

### 井上靖著 金崙會譯

이 風濤作品은 一九八一年과 八二年 兩年度에 걸쳐 노벨文學 受賞候補作品으로서 登場하여 世界的으로 큰 話題를 일으키고 있는 바 이 작품이 언젠가는 반드시 노벨文學賞에 뽑힐 것이라는 全日本國內의 支配的인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風濤 第一部 一章

고려의 태자(太子) 전(傳) (후에 元宗)이 몽고에 입조(入朝)하기 위하여 降表(降表)를 받고 강화도(江華島)를 출발한 것은 서기 一二五九년 四월 二十一日이었다. 본래는 전(傳) 부른 파도가 넘실거렸다. 이와 반대로 심의 동해안은 본토와

가장 가까와 지호지간(指呼之間)에 있었다. 몽고군은 해마다 개경(開京) 부근에 침입해오면 개경 수역(水域)은 이곳이 가장 넓 고 한강물과 조수(潮水)가 서로 합쳐서 부딪쳐 멀리 가물과 물 보이는 대안과의 사이를 점 푸른 파도가 넘실거렸다. 이와 반대로 심의 동해안은 본토와

북문을 나가 작은 구릉(丘陵) 사이의 진흙길을 걸어가기를 십 리만 심(江華島)의 부단 산리포(山里浦)에 나가, 거기에서 부터 한강의 하구(河口)에서 배 를 탔다. 강화도와 본토사이의 수역(水域)은 이곳이 가장 넓 고 한강물과 조수(潮水)가 서로 합쳐서 부딪쳐 멀리 가물과 물 보이는 대안과의 사이를 점 푸른 파도가 넘실거렸다. 이와 반대로 심의 동해안은 본토와

- ◆ 忠清南道
  - 典書公派 壽會 (安靖公派)
  - 提學公派 相沃 (在)
  - 提學公派 道應 (會)
  - 按廉使公派 榮燮 (按廉使公派)
  - 按廉使公派 泰熙 (翼元公派)
  - 翼元公派 泰淑 (翼元公派)
  - 翼元公派 順植 (唐津)
- ◆ 慶尚南道
  - 副使公派 永穆 (在)
  - 典書公派 德夫 (植)
  - 提學公派 相學 (在)
  - 按廉使公派 容默 (在)
  - 翼元公派 國默 (翼元公派)
  - 翼元公派 在芳 (翼元公派)
  - 翼元公派 達千 (會)
- ◆ 慶尚北道
  - 都評議公派 浩文 (在)
  - 都評議公派 寅秀 (會)
  - 大司成公派 明會 (會)
  - 按廉使公派 思仁 (默)
  - 翼元公派 洪默 (翼元公派)
  - 翼元公派 奭教 (安東)
- ◆ 全羅南道
  - 都評議公派 永鐸 (默)
  - 大司成公派 在根 (在)
  - 提學公派 相玉 (在)
  - 按廉使公派 鳳俊 (會)
  - 翼元公派 永壽 (泰)
- ◆ 忠清北道
  - 副使公派 昌植 (在)
  - 都評議公派 鳳會 (在)
  - 提學公派 相宜 (在)
  - 按廉使公派 泰榮 (在)
  - 翼元公派 永太 (默)
  - 翼元公派 大鏞 (會)
- ◆ 京畿道
  - 按廉使公派 在鵬 (在)
  - 翼元公派 在乙 (在)
  - 翼元公派 洙欽 (天田)



# 吾宗親의 分布狀況

우리의 先祖는 上洛君(諱 利請)께서 安東에 始居하신 後로 忠烈公先祖까지는 安東에서 居住하셨으나 그 後로는 仕路의 事情으로 各分八域하신 듯 하다. 至今 後孫들이 忠烈公玄孫의 代를 各派祖로 하고 現在 十五派가 全國 方方曲曲에 散在하고 있는데 己未大同譜에 登載된 人員數가 十二萬餘名에 達하고 있으며 漏譜者 또한 二十餘萬名이 넘을 것이며 在北宗親이 十八萬名 程度로 推理되어 南北韓 합하여 五十萬名 程度로 推算된다.

이제 그 分布狀況과 世居하게 된 緣由를 밝혀서 여러 宗親들을 하여금 不知한 初面의 一家일지라도 서로가 禮儀에 缺함이 없도록 바란다.

忠烈公先祖의 長子이신 典法判書公(諱 宜)의 長子, 都僉議司事公(資)는 後孫에 爲라는 분이 遂安伯을 지내서 遂安으로 授籍되어 遂安金氏가 되었고, 判書公의 第二子이신 忠肅公(諱 承用)의 孫子 密直司使公(諱 七祐)는 吾宗의 宗派로서 密直司使公의 아드님 江華留守公(諱 天儉)께서는 高麗의 武臣으로서 南面兵馬使를 지내셨고 李朝에서는 開國 原從功臣으로 江華留守를 지냈으나 咸鏡道高麗에 流配되어 謫所에서 別世하시니 子孫들이 이내 그곳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咸興과 安邊地方에서 世居하고 現在도 相當數가 北韓에 殘留하고 있으며 一九七九年 己未大譜에는 越南宗親 二百四十四名이 呈單入譜하였다.

開城尹公(諱 七孫)派는 開城尹公의 子, 成均進士公 寶重이 高麗의 儒學者로서 麗末의 政亂에 휘말려 被禍가 憂慮된 나머지 子孫을 데리고 海路를 利用하여 平安道 嘉州 遊臺村으로 가서서 本名 寶重을 玉으로 改名하시고 隱居生活를 하시다

그곳에서 마침내 別世 하셨다. 嘉州는 嘉山으로서 至今의 平安北道 博川郡에 屬해있었으나 至今도 그의 後孫들이 主로 博川을 中心으로 世居하며 많은 宗親들이 北韓에 殘留하고 있고 今般 大譜에는 서울을 爲 始해서 地方에 散在하는 越南宗人 九十六世帶에 六百四十五名이 入譜하였다.

郡事公(諱 七陽)派는 公이 遂安郡事를 지내시고 當代에 文學이 出衆하시서 圃隱 鄭夢周牧隱 李穡, 그리고 公의 再從이신 楊若齋 大司成公 九容 등과 함께 性理學을 研究하셨으나 李太祖가 登極한 後에는 漢陽을 멀리하시고 全羅南道 康津에서 隱居하신체 李太祖가 여러 번 불렀으나 應하지 않았고 子第들에게 遺言하시기를 高麗의 舊臣으로서 나라와 더불어 함께 죽지 못하였으나 너희들은 잘 修業해서 新王에게 忠誠하라"고 하셨다.

그 後 長子이신 諱 頊은 密直司使 京畿道 坡州 地方을 中心으로 京畿道 全區域에 散在하고 있으며 一部는 全羅道의 康津과 扶安等處에 居住하고 郡事公의 第二子 敏은 비늘이 亦是 直提學이며 그 後孫들은 康津을 中心으로 近域에서 살고 있다. 이밖에 郡事公派는 八千四百一十一名의 收單이 接受入譜되었다.

典書公(諱 成牧)派는 公의 子 檢校公 休가 高麗 恭愍王朝에 檢校近侍였으나 李太祖가 護軍으로 拜命하자 父母任의 辱을 憑藉하시고 燕岐郡 全義로 落鄉하시자 다시 漢城判尹으로 累徵하였으나 끝내 나가시지 않으셨다. 仍해서 後孫들이 主로 燕岐와 京畿道 華城 地方에 集團居住하고 있으며 一部는 慶北의 達城과 星州·漆谷·清道·慶南의 昌寧等處에 分布

를 이루고 있다. 今番大譜에는 六千八十五名이 收錄하였다. 한편 典書公의 玄孫이신 縣監公 福壽는 全義에서 定山으로 移居했다가 다시 平安北道 羅邊으로 가서 살았는데 民籍 五百九十一名에 達하고 있다. 大司成公의 弟이신 諱 齊顏公 錄해서 이를 定山 金氏라 한다면 大同譜에 合譜하기를 懇請해왔으나 戶籍上 本貫이 定山으로 되어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密直副使公(諱 天順)派는 公의 孫子이신 微庵公(諱 大來)은 비늘이 副司正이었고 世宗朝에 成三間 朴彭年 崔恒 등과 交誼가 두터웠으며 端宗遜位의 所聞을 듣고 忠南 結城(洪城郡內)의 寶蓋山 밑에서 隱居篤學하셨으므로 子孫들이 그곳에서 살았는데 微庵公의 長子이신 昭威將軍公(諱 鈺)의 後孫들은 洪城과 保寧地方에 世居하며 微庵公의 第二子이신 諱 鎮의 後孫들은 江原道 鉄原을 中心으로 해서 集團居住하고 그 밖에 全南 寶城 地方과 慶南의 陝川 領海·巨濟地方에도 散在하고 있으며 또 鐵原은 江原道の 北地方에 屬해있으므로 殘留北地方에 屬數가 收單을 내지 못해 漏譜되었는데 大同譜에 二千三百九十二名이 入譜되었으나 大司成公派(諱 九容)는 公이 麗末의 大文豪로서 鄭夢周 李崇仁 등과 性理學을 提唱하여 斥佛揚儒에 앞장섰으며 親明派로서 北元의 使臣을 迎接하자 李仁任 등의 主張을 鄭道傳·權近 등과 함께 反對하다가 北元의 米을 받았다. 그 후 遂行禮使로 明나라에 가시는 途 中, 遼東에서 北元의 總兵에게 잡혀서 大理島로 流配中 江門站에서 病死하셨고 公의 子 成川府使公(諱 明理)께서는 京畿道 廣州에서 始居하셨고 다시 拘川에서 世居하셨으나 現在 在는 分布가 全國에 蔓延되어 있는데 특히 京畿道 抱川 忠北의 陰城·槐山 全北의 益山 沃溝·慶北의 永川 慶山 醴泉·義城等處에 大舉集居하며 黃海道

- 州地方으로 落鄉하였으며 地 方에서 分布를 이루고 있는데 大護軍公의 長曾孫이신 通贊公(諱 世重)의 後孫들은 全南의 咸平과 靈光 地方에서 世居하고 次曾孫 縣監公(諱 自重)의 後孫들은 寶城과 長興 地方에 集團居住하고 있으며 入譜者數는 一千五百三十四名이다.
- 한편 大護軍公의 仲父이신 之彦公은 清州에서 살다가 元山으로 入北해서 清州金氏가 되었다는데 지금도 元山 地方에 相當數가 살고 있다.
- 提學公派(諱 益達)는 宗系인 正言公(諱 鈇)의 後孫은 慶南의 山淸에서 集居하고 忠武公(諱 時敏)의 後孫들은 忠北 槐山 地方에 集居하며 教官公(諱 北淸原·槐山·曾坪)一帶에 大時進의 後孫들은 忠南 天原郡 並川 面 佳田里 栢田(짓밭)을 爲 始하여 長松里 卜多會里 等地에 大門中을 이루고 있고 參奉公(諱 友甲)의 後孫은 槐山과 永同 地方에 文肅公(諱 悌甲)의 後孫은 槐山·陰城·利川 地方에 散居하고 庇安公(諱 仁甲)의 後孫은 星州·居昌等 慶尚南北道에 散居하며 天安·忠州·沃川·提川等·主로 忠南, 北地方에서 大學集團居住하고 있다. 또 生員公(諱 壽眞)의 後孫은 亦是 天安 地方에 集居하며 清州 地方에도 相當數가 살고 있고 生員公의 孫子이신 忠肅公(諱 允悌)께서는 平北의 宣川에 始居하시서 後孫들이 宣川郡 台山 面에 世居하며 越南宗人 數世 帶를 除外하고는 大部分이 그곳에서 殘留하고 있어 大同譜에 漏譜되었다.
- 또 提學公의 曾孫인 通德郡公(諱 哲鈇)의 後孫들은 陰城等 地에 集團世居하고 있다. 그 밖에 또 提學公派는 全國各處에 散在하고 있는 數가 많으며 入譜된 人員은 壹萬三千二百二十九名에 達하고 있다.
- 判三司公派(諱 錡)는 公의 子 通翁公(諱 鉉)이 麗末에 任宦해서 비늘이 贊成事에 이르렀으나 李太祖가 創業하자 黃海道 海州 三谷里에서 隱居生活를 하면서 自號 通翁이라 하였는데 지금도 海州 地方에 그 後孫郡方에 大學로 集團居住하고 奉

- 郡事公派 (康津) 敬默 (郡事公派) 思默 (康津) 大護軍公派 (咸平) 成默 (寶城) 敦會 大護軍公派 (順天) 元會 (寶城) 興太 (在 寶城) 按廉使公派 (光山) 堯會 (羅州) 成坤 (會 羅州) 翼元公派 (谷城) 洙採 (永浦) 湧信 (泰 永浦) ◆全羅北道◆ 郡事公派 (全州) 南用 (在 益山) 在華 大司成公派 (完州) 炳會 (全州) 東完 (榮 全州) 翼元公派 (高敞) 昌會 (高敞) 尚會 (高敞) 翼元公派 (淸昌) 炳永 (會 全州) 在厚 ◆濟州道◆ 翼元公派 (濟州) 仁學 (榮 京都) 日秀 (會 京都) 祝創刊
- 清州大學校 總長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政治學博士 金明會 忠北 清州市 內德洞 三六 電話 校 二四八三二 自 四一四八二〇
- 建國大學校 監事 安東金氏大宗會 副會長 金書默 城東區 華陽洞 一三二 電話 校 四四五〇六一三九 自 四六三一〇七一〇〇
- 壽山醫院長 醫學博士 金相均 서울 麻浦区 阿悅洞 一三二 電話 三六四一〇五六二 三六四一七三七二



# 宗意暢達

(招待隨筆)

## 老爺姑有感

金 思 達

(筆者紹介) 安東金氏大宗會顧問·韓國文人協會理事·韓國隨筆家協會副會長·國展書藝部招待作家·醫學博士·博愛病院院長·韓國健康管理協會理事

지난날의 우리나라는 노인친국이었다. 장유유서에서 비롯된 경로·사상이 구현된 나라였다.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지니고 누렸던 사랑스런 미속(美俗)이었다.

우리나라는 해방 전까지만 하여도 거리에나 어디에서고 짐을 든 노인이 없었다. 노인이 짐을 들었으면 누군가의 젊은이가 그 짐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버스나 전차 안에서 서있는 노인이 없었다. 그보다 먼저 젊은 누군가가 자리를 양보하였기 때문이다.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은 거저 붙여진 이름이 아니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어떠한가? 이 나라가 노인 학대국이 되거나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

그 한 예로 버스마다 경로석이란 표지가 붙어 있지만 여기에 새파란 젊은이들이 비석이 앉아 있다.

며칠전 지상에 보도된 바에는, 분비는 차 속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어느 중년의 젊은이가 서 있는 노인이 가여워 선뜻 일어서 노인에게 자리를 권하려는 참에 학생 녀석이 짙게 비집고 앉더라는 사실을 읽은 일이 있다. 정말 어찌그런 젊은 노인이 아닌가?

버스값, 이발료, 복욕비 등에 대해 노인 특혜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 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모양이다. 눈에 보이게 통명스런거나 평계를 잡아 거절하려는 기세라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눈치가 역겨워 어지간한 노인들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예가 예사라 한다. 그리고 보면 빈한한 일부 노인들만이 젊은이들의 관심과 학대를 감수하면서 그 권리를 행사 한다고 나 할까.

물론 노인들에 대하여 한층 더 친절한 일부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한 집안에서 노인들을 모시려는 젊은이들은 드물다. 노인들을 모시지 않으려는 화려한 이론들이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치고 부모와 함께 살려는 자가 거의 없다. 외국유학을 한 젊은이들은 부부일수록 부모를 따로 살게하거나, 심지어는 양로원에 권유하는 예까지 있다. 심지어는 양로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도 할까.

정녕 요즘의 아들 며느리들은 노인들을 이렇듯 가련하고 슬프게 하고 있다. 오늘날의 양로원이 현대판 고려장과

그 무엇이 다르랴.

8·15 해방 후에 가족적으로 밀어닥친 이질적 외래종자를, 개화된 선진 세계의 올바른 사조인줄 착각을 하고 우리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경향이 있다.

그런 풍조 속에서 자란 것이 오늘의 젊은이들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사문 나가단, 오랜 세월을 두고 쌓아 올린 우리 겨레의 빛나는 전통과 사회적 기강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오욕에 찬 비리의 습성과 광풍이 온 나라를 휘몰아 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앞선다. 우리의 드높고 아름다운 윤리관을 스스로 버리는 망패(妄悖)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일찌기 아시아대륙의 한 북관에서 5천년 동안의 눈부신 문화유산들을 쌓아 올려 인류문화 창조의 한 기틀을 닦아 왔다고 자부해 마지 않던 저 중국의 석자들도 우리 겨레의 예의 바른 민족성에 대해서는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가?

「아놀드·토인비」같은 석학도 「삼대가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한국의 가족제도는 영구히 보전 되어야 하며 서양에도 이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어느 글에서 오륜의 변질을 가로막고, 「군신유위는 자유절(自由絶)이요, 부자유친은 삼팔절(三八絶)이며, 부부유별은 해방절이라. 장유유서는 동무절(同俦絶)이요, 봉유유신은 사상절(思想絶)이라」는 해학적 개탄을 읽고 그 재치있는 글 솜씨에 공감한 일이 있다. 아난게 아니라 우리네 조상들은 삼강오륜을 이른바 인간 윤리의 근본이요, 도덕생활의 지표로 삼아 왔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정신은 사회구조와 문화양식의 급격한 변모로 말미암아 날이갈수록 변용되고 퇴색해 왔다.

삼강 오륜의 엄격한 도덕률 자체보다도, 그 전통을 근거(根據)로 하여 시대상에 알맞은 자명한 도덕률을 세워, 알찬 윤리적 생활을 이어왔던 조상들의 준엄한 생활정신과 도덕생활의 전통을 재장보단(採長補短)하며, 계승해 나가려는 노력이 오늘날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러므로 옛 조상들의 그 정신과 품성을 거울 삼아 무엇보다도 효(孝)를 모든 선행의 으뜸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

도리켜 한 편으로 생각하면 일제치하

의 학정과, 발전적으로 탈바꿈을 할 기회를 상실했던 조선 말년의 폐풍이 일제하에 시달렸던 국민들에게 있어 어쩌면 그것은 불가피한 과도기적 현상이라 굳이 자위할 수도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경제개발을 이룩하고 전세계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의식구조를 살펴보고 깨내어 볼 때, 우리에게 많은 반성할 점이 발견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노인복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비록 선진국일지라도 외국의 가족제도를 과연 무작정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되뇌어볼 문제가 아닐까?

어떻든 진실함에 비친 노인들은 스스로의 정수를 한탄하고 있다. 개중에는 죽고 싶어도 자식이 불효자로서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것이 두려워 죽지를 못한다고 말하는 기막힌 노인도 있다.

자식에게 고려장으로 버림을 받으려고 깊은 산속으로 지게에 지워져 가던 어머니가 지게 위에서 자꾸만 손에 닿는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는 것이었다. 산정에 가까왔을 때,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길어 힘하여 내가 하산할 때, 길을 잃었을까 걱정이 되어 그랬노라고 대답 하였다. 이것이 예나 이제나 어김없는 어머니들의 심정이다. 그 자식이 어머니를 지게를 가져가자고 했다. 나도 다음에 아버지 지를 저다 버릴 때, 그 지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들 며느리와 더불어 손자녀를 돌보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것이 소박한 한국 노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물론 그들 노인들의 생의 가치기준에 있어 세속적인 부귀 영화 따위는 이에 비하여 그리 대단한 것이 못된다.

百十九名이 收錄되었다. 이 명단에서 1979년에 發刊한 十四名의 宗親들이 入譜되었고 그 分布狀況은 全國 方方曲曲에 散在해 있으며 앞으로 하루 빠리統一되어 南北各處에 山山宗親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 다 같이 合譜의 榮光을 期待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 常務理事會 構成

지난 六月二十六日에 開催한 서울·地方 連席理事會에서는 定款 第十七條 및 第十八條의 規定에 依해서 다음과 같이 常務理事會를 構成하고 同 第十九條 및 第二十條의 權限을 委任하였다.

다 음

- 一、當然職
- 會長 明會, 副會長 書
- 一、選任理事
- 開城尹公派 郡事公派
- 載鴻, 典書公派 在文賢
- 潤 大司成公派 喆會 提
- 學公派 相勳, 按廉使公派 尚會, 翼元公派 振台

**世元企業 代表**  
시멘트製品 製造業  
韓國工業規格表示許可業體

**安東金氏大宗會 理事**

**金 在 湧**

本社：工場：京畿道抱川郡永中面永松里二二七二二  
電話：(一〇一)交)抱川楊文 二二七〇八  
서울事務所電話 九九二二三〇一  
九〇二五八八三

**安東金氏大宗會 理事**

**金 昌 植 (一名在福)**

自宅：釜山市東萊區蓮山洞五八八一  
세연산아파트 A동九〇三호  
事務所：釜山市 南区 門峴洞 二三三五  
電話：自宅 八二二一 二八四四  
事務所 六六一五九七〇번

世昌陶芸研究釜山事務所代表  
文公部長官 高麗靑磁工藝品專門指定業體  
商工部長官

**安東金氏大宗會 監事**

**金 相 蒙**

稅務士

서울 江南區 三成洞 一六〇一三  
電話：(자) 五六七二 六四七二  
(차) 二七二一 八八八七

**安東金氏大宗會 副會長**

**金 泰 亨**

歸護士

서울 中區 太平路二街 三六一  
電話：(자) 二八二一 四〇二五  
(차) 五六一一 一六六一

**安東金氏大宗會 常務理事**

**金 崙 會**

서울 東大門區 忠愛洞 九〇一四  
電話：(자) 二四四一 三七一七  
(차) 四三二一 一三八八

**安東金氏大宗會 支部長**

**安東金氏大宗會**

常任監事 **金 卿 辰**

서울 東大門區 徽慶洞 一八三三 三三三三  
電話：九六六一 八七三四



# 이동비화 (陵洞秘話)

이동비화 안동군 목천면 구송 마을이었다.

동동동인데 이곳은 충렬공(忠烈公)선조님의 묘소와, 재실, 영정각이 있는 곳이다.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란도 이 때는 평정되고 할일 없는 명나라도독이여승(都督李如松)은 아우인 여백(如栢)과 함께 심부의 종자 몇명만 거느리고 산천정체를 구경삼아 八도의 명산 대천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안동에서 나동장을 따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여승이 이 안동 땅에 들어온 것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이 안동은 왜란, 중에 영의정으로 서 도체찰사(都體察使)를 겸하여 상감(上監)의 주(義州)까지 호종(扈從)한 서애 류성룡(西厓柳成龍)과 진주목사(晉州牧使)로써 진주성을 지키다가 전사한 학봉 김성일(鶴峯金誠一)의 고향이라는데 더욱 관심을 가졌다. 뜻이 여백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이러한 큰 인물들을 지도하고 고명한 도학을 전수한 퇴계 이황(退溪李滉)의 고향 면서 이란 말을 들은 이여승은(이곳에는 아직도 대명산이 남아있으니라)는 생각이 예리하게 머리를 스쳐갔다.

그때서 이여승은 말머리를 낮동상 상류로 향해 돌리고 종자들을 따라고 재추했다.

나동장의 상류는 예안현이고 예안 고을은 퇴계선생이 수많은 제자에게 강학하던 곳이다. 안동에서 오십리... 이여승의 일행이 예안현에 도착하기는 오시(午時)도 벌써 넘은 때였다.

가을은 벼우같이 맑아 모래알을 헤아릴듯 하고 만산의 실록은 진달래의 붉은 꽃빛과 조화를 이루어 수단(繡段)을 깔아놓듯 봄바람에 아롱거리는 데 면산에 가불거리는 아지랑이는 '이리로 오라'고 손짓하는 듯했다.

이여승은 안동에서 그곳으로

## — 消息 —

### ■ 1983年度 定期總會 開催

1983年度 大宗會 定期總會는 4月24日(日)午前11時부터 清涼里驛前에 있는 맘모스호텔(前 大旺코-나)七層 나이트 클럽에서 350餘名의 京鄕各地의 宗親들이 參席한 가운데 盛大히 舉行하였다. 이날 總會는 經過報告에 이어 昨年度 決算報告가 있었고 定款에 依해서 任員改選이 있었는데 清州市·忠北道宗親會長인 得榮氏의 『會長團全員留任』動議와 提學公派 在鴻氏의 『證衡委員制로 改選하되 現會長團과 執行部는 全員退陣하고 改選하자』는 改選案, 그리고 大司成公派 在承氏의 『證衡委員制는 贊成하나 現陣營을 包含해서 改選하자』는 再改選案이 있어 舉手票決한 結果 207:0:147票로 動議案이 過半数 以上으로 通過되었는데 그 內譯은 다음과 같다.

會長	翼元公派	明會(政治學博士·現清州大學校 總長)
副會長	正儀公派	書默(建國大學校 監事)
"	提學公派	相均(醫學博士·壽山醫院長)
"	翼元公派	泰亨(前教育監·現辯護士)
常任監事	接廉使公派	卿辰
監事	提學公派	相蒙

### ■ 大总会 全国理事会 開催

大总会에서 지난 六月二十六日(日)正午부터 安東茶房에서 京鄕各地에서 參席한 理事와 本部任員等六十一名이 集合 一九八三年度 第一次 理事會를 開催하였다. 大总会 創立後 서울居住理事만으로서 月例的으로 理事會를 開催하고 總會에서의 委任事項과 緊急事項等을 議決하였고 地方의 理事는 可히 有名無實의 狀態일 뿐 아니라 中央에서 計劃하고 決議된 事項이 地方에 까지 傳達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實情을 勘案해서 一九八三年度부터는 中央과 地方理事가 한자리에 모여서 眞實한 討議를 해서 宗事를 執行하고 大总会의 모든 狀況을 地方의 宗親에게까지 두루 傳達코저 連席會議을 開催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方針으로 나갈것이다. 이날 會議에서는 任員間에 相互人事를 交換하고 다음의 案件을 圓滿히 議決하였다.

- 一. 常務理事會 構成의 件
- 一. 會報發刊의 件
- 一. 獎學財團 構成의 件
- 一. 忠烈公 傳記發刊의 件

會議는 午後 五時에 閉會 했는데 閉會後에도 서로가 모여앉아 親睦의 情을 나누다가 各各 歸家하였다.

### ■ 宗人實態調査表(카-드)作成

大总会에서는 一九七九年十二月에 己未大同譜를 調期的으로 成功裡에 完遂하고 이어서 一九八〇년에는 宗人實態調査表(카-드)를 作成 備置하고 있습니다. 族譜는 當時의 狀況을 記錄한 金石之文의 寶錄이며 그 後에 發生하는 出生·死亡·嫁娶·住所의 變更·職位의 變動等 隨時로 變遷하는 動態는 그대로 放置할 수 없는 形便입니다.

이러한 問題를 打開하기 爲해서 大总会에서는 滿一年間에 十餘名의 人員이 動員되어 二萬五千世帶의 카-드를 體系的으로 作成 備置하였으니 全宗人들은 이러한 趣旨에 積極協助하시어 家庭의 變動事項(住所 電話 變動·出生·死亡·嫁娶·職位昇進·職業變動等)을 隨時로 連絡하여 주시기 仰願하나이다.

### ■ 서울 江南성모병원에서 無料開眼 宗親 金在浩 教授 執刀로

고향이 遂安郡이고 現 카도릭醫大 教授이며 現江南聖母病院 眼科課長인 金在浩宗親의 執刀로 實施하고 있는 無料開眼手術은 6月15日까지 全國에서 總 39名에게 光明을 되찾아 주었다고 밝혀졌다.

한국 천주교 창립 200週年 紀念事業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盲人開眼手術慈善部에 따르면 今年末까지 300명, 그리고 84년까지는 1335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展望하는데 対象者는 零細民과 準零細民이라한다.

- 大总会 會長 明會 博士는 清州大學校總長으로서 學術交流 關係로 7月3日에 出國, 유·넬 各國을 巡訪하고 7月26日 歸國하다.
- 大邱高檢 次長 檢査 東哲氏(副使公派)는 7月22日附로 清州地檢長으로 榮轉·副使公派인 東哲氏는 慶北高와 서울大法大를 卒業·第13回 司法考試에 合格(世系年鑑人名編 22頁 參照)
- 大檢察廳檢事·法務部送務擔當官 慶會(提學公派)는 7月22日附로 高檢監察部長에 榮轉(世系年鑑人名編 39頁參照)
- 釜山檢察支廳 檢事 次會(翼元公派)는 東部支廳으로 榮轉(世系年鑑人名編 269頁參照)
- 서울市 運營課長 昌信(都評議公派)은 1982年 12月附로 서울市綜合民願室長에 榮轉.
- 馬山檢察支庁長 泰祥(都評議公派)氏는 8月 17日附로 蔚山支庁長에 榮轉

이 고산 밑에서 이여승은 말 을 세우고 급히 뛰어내렸다. 종자들은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로다, 여기...」 이여승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곳에서 노숙(露宿)을 하자고 명령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이여승은 아우 인 여백만을 데리고 산기슭으로 올라갔다. 「아차!」 불과 백보 가량 올라간 이여승은 놀란듯이 소리쳤다. 그곳에는 봉분(封墳)이 제법 큰 무덤이 있었는데 아무도 돌보는 자손이 없는 듯 잠썩속에 쌓여 있었다. 이여승이 찾아온 명당의 바로 이 자리였다. 그러나 그곳

산은 점점 높고 골은 아지는데 인가(人家)라고도 무지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산은 첩첩하고 뿌리 없는 고산(孤山)은 여기저기 나열해 있는 데 골짜기는 좁디좁고 눈앞에는 대산준령이 도사리고 있을 뿐이다. 「장군, 이대로 가면 오늘밤도 심상산목에서 노숙(露宿)을 해야 합니까?」 종자중에 한사람이 이여백에게 나즈막한 말로 귀뜸한다. 「글쎄 제독(提督)께서 하시 는 일이니까!」 이여백은 들릴까? 말까? 나즈막히 대답을 하고 따라만 간다. 「형님! 딱 하십니다. 그렇게 좋은 터가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명당을 찾은 후인들 무엇이 늦겠읍니까?」 이 말들을 들은 이여승은 산천이 뒤흔들릴만한 큰 소리로 웃었다. 「과연, 과연! 아우의 말이 옳도다. 그렇지! 그렇지!」 이여승은 몇번이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자! 모두 가자...」 이여승은 앞장서서 말을 달렸고 종자들은 바쁘게 뒤를 따랐다. 「이여승은 앞장서서 말을 달렸고 종자들은 바쁘게 뒤를 따랐다.」

### 通常會費 納付方法

通常會費를 納付코저 하시는 宗親께서는 納付하실 金額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서 『우편대체납입』 用紙에 다음 事項을 記載해서 그 우체국에 맡기시면 됩니다(用紙 및 送金料 없음).

다 음

1. 口座番号 서울513119
1. 加入者名 安東金氏大宗會
1. 納入者 住所 姓名

※ 2名以上이 同時納付하실 때는 같은 用紙를 쓰시고 뒷면(통신란)에 주소, 이름, 금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p>安東金氏大宗會 理事</p> <p>組織部長 金相煜</p> <p>서울 麻浦區 阿峴洞 三四六·四二八 電話 三六二·一九三〇八</p>	<p>安東金氏大宗會 理事</p> <p>事業部長 金喆會</p> <p>서울 道峰區 孔陵洞 阿峴洞 三四七·七號 電話 九七二·一八五九一</p>	<p>安東金氏大宗會 理事</p> <p>出版部長 金元榮</p> <p>서울 東大門區 徽慶洞 一·二二四·九 電話 二四四·一三七·一七</p>	<p>安東金氏密直便公派 會長</p> <p>理事 金在沼</p> <p>서울 冠岳區 新林五洞 一四二·八一·一〇 電話 八七八·一三二·一六</p>	<p>安東金氏開城尹公派 顧問</p> <p>理事 金履範</p> <p>서울 城東區 杏堂洞 三二七·一三·八五 電話 二九三·一三二·六一</p>	<p>安東金氏開城尹公派 顧問</p> <p>理事 金載鴻</p> <p>서울 東大門區 中和一洞 二九〇·一三·二二 電話(校) 九七二·一四三·四一八 (自) 四三三·四一八 七五三</p>	<p>安東金氏開城尹公派 顧問</p> <p>理事 金在文</p> <p>서울 江西區 內鉢山洞 四一·六 電話 六六一·二四四·二</p>	<p>安東金氏大宗會 理事</p> <p>金喆會</p> <p>서울 銅雀區 鶯梁津 一洞 二二五·一·二四五 電話 八二八·一三·八〇五</p>	<p>安東金氏大宗會 理事</p> <p>金元鏞</p> <p>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委員 禾谷三·五洞 새마을金庫 理事長 陽谷中綜合商等學校 理事長</p> <p>住所: 서울特別市江西區 禾谷洞 二七·二 事務所 電話: 六〇五·一〇·九四三 學校電話: (金浦) 六一〇·一三·六 自宅 電話: 六〇二·四八·三一</p>
--	---	--	--	---	---	--	---	--



사람을... "를 갖게 되기는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어찌서 사람들이 族譜가 重要하다고 認識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自家의 族系가 分明하고 뚜렷한 族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란 公認의 事實이다.

族譜의 起源은 考마듯 하다. 옛날에 中國의 文獻에 依하면 杜氏의 城南이니 范氏의 吳中이니 하는 것은 한 氏族의 集團體로 譜冊의 形態를 갖추었다고 하나 그 規模나 形式, 그리고 體系에 對해서는 알 수가 없다. 또 韋氏의 花樹會도 마찬가지이다.

新羅나 高麗에서도 崇祖睦族의 精神을 涵養시킨 것은 古今

만 社會制度나 家族的인 觀念에서 相當한 差異點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 先祖의 生·卒의 年度表示가 없고 墓所의 紀錄까지도 없으며 先男後女の例를 두지 않고 出生順으로 序次를 잡았다.

이러한 實例는 文化柳氏譜나 우리 庚辰譜도 마찬가지이다. 이 事實은 當時의 崇祖觀念이 新羅에서 高麗를 거쳐오는 동안에 國教로 삼아온 佛敎의 影響은 李朝初期까지 그 殘滓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生覺할 수 있다.

또한 가지 興味로운 것은 安東權氏譜가 初刊된 一四七六年

# 우리族譜의 歷史的 考察 (1)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族譜는 西紀 一五六二年에 發刊된 文化柳氏의 嘉靖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一四七九年 八月七日 中央日報에서는 (國內 最古의 朝鮮) 初期 族譜發見) 이란 紀事를 大書特筆로 紹介했다. 이 族譜는 美國 하버드大學의 와거너 博士가 國立圖書館에서 發見했는데 이는 文化柳氏의 嘉靖譜 보다 八十六年이나 앞선 一四七六年 刊의 (安東權氏의 成化丙甲譜) 라고 한다.

이 安東權氏가 우리나라에서 最古의 族譜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 安東金氏의 族譜는 宣祖十三年 庚辰年에 이루어졌으니 이 해는 西紀 一五八〇年이다. 文化柳氏譜 보다 是十八年 後이며 安東權氏譜 보다 是百四年後가 된다.

우리의 庚辰譜는 가장 오래된 것은 아니더라도 남에게 밀리지 않았음은 오래된 族譜로 손꼽을 수 있다.

그런데 다시 考察할 때 文化柳氏의 嘉靖譜와 우리 庚辰譜와는 十八年의 期間이기 때문에 譜法에 별다른 差異는 없는데도 하나, 安東權氏의 成化丙甲譜는 一世紀의 歲月에 不過한지

이 考察은 當時의 社會가 佛敎에 젖어온 사람들의 集合體이기 때문에 王侯公卿에서 一庶民에 이르기까지 全體國民들이 佛籍을 가졌으며 그 先祖의 靈을 奉享하는 法도 宗(寺)에 位牌를 奉安하고 每年 供養米를 獻納해서 齋를 올리든지 또는 墓下에 齋를 짓고 必 要한 位土를 마련해서 僧侶로 하여금 墓域을 守護하고 供養을 올리게 함으로서 極樂으로 가신 父母와 祖上에 對한 孝道를 다한다는 觀念을 가졌다.

이러한 연고로 歲月이 오래가면 自然히 子孫들의 발견을 도맡아지고 齋를 지키는 僧侶들도 갈아들고 보면 이 또한 精神이 解弛해지며 守護나 奉享이 疎忽해지고 齋를 失傳하게 된다.

그러나 當時의 사람들은 이 當然視하고 어디까지나 死後의 祖上은 極樂世界에서 往

生하는 줄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돌아가신 分들의 墓所나 忌日은 形式에 不過하고 外戚에 대한 情誼도 當代에 그쳐 버린 듯 하다. 그러기에 族譜의 必要性을 느끼지 못했다는 事實도 아울러 알 수 있다.

그때는 오늘날의 族譜와 같이 先男後女라는 男女尊卑의 差別을 두지 않고 子女の 序次는 出生의 順에 依했으며 外孫도 親孫과 같이 數代를 내려가며 記載되어 있으니 이 또한 宗系를 中心으로 하는 家族制度의 社會도 아니었다는 事實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가지 興味로운 것은 安東權氏譜가 初刊된 一四七六年

에서 우리 庚辰譜를 刊行한 一五八〇년까지의 一四四年 사이 에 婦人의 改嫁를 禁止시킨 듯 하다. 즉 安東權氏舊譜를 보면 對照하고, 그때 이미 編纂한 坡平尹氏와 全城李氏의 姓譜를 參酌해서 外孫의 支派는 削除하고 同姓의 子女만 記錄해서 簡略하면서 詳細하게 해서 前日 사람에게 改嫁했다는 事實이 分明하며 이는 庶民도 아니요, 當代의 大學者이며 宰相을 지낸 政諍한 兩班의 孫女라는 데서 더욱 興味롭다.

그러나 그 때로 부터 百四年後에 刊行한 우리 庚辰譜나 八十六年 後에 刊行한 文化柳氏의 嘉靖譜에는 이러한 事實을 서 비로서 安東金氏姓譜單本이 完成되었다.

그러나 그 庚辰譜는 얼마 후 에 壬辰과 丁酉의 倭亂을 겪고 丙子胡亂 등으로 말미암아 擧皆가 消失되었는데 大宗會에서 이 貴重한 珍譜를 求得해서 一九八二年에 影印出版하였다.

그 後는 百六十年만인 一七三九年에 發刊한 '己未世譜' 나 이 時에 英祖十五年이었다. 이때는 別世 族譜로서의 體系가 完全히 잡히고 博識의 巨儒들이 法과 恰似하다. 다음호에 계속

## ◆華燭◆

○前大宗會理事 翼元公派 泰珍氏 次男 庄植君 五月七日 十二時 宗로에 식장 본관 一층에서 結婚式舉行.

○大司成公派 元會氏 長男 泰潤君 六月二十六日(日) 午後二時 무학에 식장 二층 특실에서 結婚式舉行.

## ◆訃音◆

○大宗會顧問이시며 前遞信·保社部長官이신 泰東博士께서는 一九八二年 二月七日(음十二月二十六日) 日本 東京 市 一 재팬 호텔에서 享年 六十五歲로 別世.

○前大宗會顧問이시며 郡事公派 會長이신 鳳默氏께서 宿患으로 一九八二年 九月一日 全北 扶安郡 扶安邑 東中里에서 享年 八十三歲로 別世.

○大宗會 初代副會長이시며 前 南大門病院 院長으로서 大宗會顧問이신 相瑄氏께서 宿患으로 一九八三年 六月二十五日 十二時에 聖心病院에서 享年 六十九歲로 別世

○前大宗會理事이시며 典書公派 會長이신 泰一氏께서 宿患으로 一九八三年 七月二日 忠南 天安市 院城洞 二九一 自宅에서 享年 七十七歲로 別世

○大宗會 初代會長이시며 (初代 七代) 現 名譽會長이신 提學公派 鶴應氏께서 老患으로 一九八三年 七月十七日 午前二時 美國 로스앤젤레스 自宅에서 享年 八十六歲로 別世.

## 原稿募集

本報發展을 위하여 江湖諸宗의 玉稿를 歡迎하오니 다음 要領에 依하여 作成送付해 주시면 採擇登載하겠읍니다.

一、論文 崇祖睦族과 倫理道德에 寄與되는 內容

一、各派宗中 및 宗親會에서의 行事에 對한 經過記事

一、宗親中에서 있었던 美談佳話 및 善行

一、職位の 陞進이나 公務로 因한 海外旅行 關係

一、先祖에 關係되는 傳說

一、其他 宗親들에게 알리고 싶은 事項

株式会社 三亞産業 代表理事社長  
 平和信用協同組合  
 安東金氏大宗會理事  
**金振台**  
 (在)

自宅: 서울 江南區 盤浦洞 盤浦 APT 88동 502호  
 會社: 大邱直割市 東區 新岩洞 597-1  
 自宅電話: 서울 599-2716 大邱自宅: 94-2609  
 會社電話: 大邱 94-1101·94-1102



# 舊安東金氏와

## 新安東金氏의 区分

(1)

### 舊安東金氏

안동김씨는 신라의 왕손으로  
씨태보공알지(太輔公 閔智)를  
시조로 하고 신라경순왕(敬順  
王)의 배제 아드님인신 대안군  
은열(大安君 殷悅)의 손자  
공부시랑(工部侍郎 尉叔承)을  
관조(貫祖)로 해서 충렬공(忠  
烈公 尉方慶)을 중시조로 모  
시는 일파와, 신라경순왕 때후  
백제의 견훤(甄萱)이 군사를 이  
끌고 고창(古昌) 지금의 안동)  
까지 쳐들어왔을 때, 김행(金  
幸)·장길(張吉)과 더불어 전  
원(全)의 군사를 물리친 공로로 고  
려의 태조 왕건(王建)으로 부  
터 태사대광(太師大匡)의 벼슬  
이 내려진 김선평(金宣平)을 시  
조로 하는 일파가 있으니 전자  
를 구안동(舊安東) 김씨라 하고  
후자를 신안동(新安東) 김씨라  
하는 데 이로 인해서 간혹 혼돈  
이 비껴지는 사례가 있기에 이  
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一  
九八二年十二月에 발간한 세  
계연감 편집대상세회 기록하  
였으나 한자(漢字)가 너무 많  
아 어린 학생들이나 한문에 능  
통하지 못한 분들은 읽고 이해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까? 생  
각되기에 이에 그 요지를 누구  
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하는  
바이다.

우리 구안동(舊安東)의 경우  
는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  
譜)라는 책에 의하면 태사 일  
공(太師 曰 號)을 시조로 기록  
되어 있으나 우리 안동김씨의  
족보에는 일공(曰 號)의 아버  
님인신(承)승(叔承)공 때 안동  
김씨로 봉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 서기一九五八년에 발행한  
김씨대종사(金氏大宗史)에 의  
하면 구안동이나 신안동을 모  
두 신라 왕실 계통의 후손으로  
나와있고 또 한편에서는 양쪽  
이 같은 조상에서 갈려진 집으  
로 추측하고 있다. 다만 옛날  
부터 안동 지방에서는 우리 구  
안동김씨를 김행(金幸)으로

라고 불러왔는데 그것은 상락  
은 안동의 옛이름으로서 우리  
구안동김씨의 조상님들중에는 상  
락군(上洛君)에 봉해진 분이 대  
대로 많아졌기 때문이며 명문  
의 집안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  
진 까닭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구안동은 고려 때 부터 이조  
중말기(李朝中末期)인 인조(仁  
祖)임금 때 까지에 대대로 명  
인들이 쏟아져 나왔고 상당한  
세력을 떨쳐왔다.  
그 반면에 『신안동』은 이조  
말기인 인조 때 부터 시작해서  
고종(高宗)임금 때 까지 많은  
인물들이 배출 되었고 특히 순  
조(純祖)·현종(憲宗)·철종(哲  
宗)의三代에 걸친 세도정치를  
통해 많은 권세를 떨쳤다. 그  
러니까 안동김씨는 구안동김씨  
의 세력이 쇠퇴하면서 이와  
같은 시기에 옛비슷하게 신안  
동김씨 시대가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서기一九八二年인 성종  
十三년에 편찬하고 一五三〇년  
에 다시 증보(增補)해서 발행  
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안동조 인물편(安東條 人物篇)  
에 고려시대에 十一명, 이조시  
대에 九명의 도합 二十명의 명  
인이 실린데 비해 신안동은 태  
사 김선평(太師金宣平)을 제외  
하고는 단 한사람도 실린이가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도 짐작이 간다.  
안동김씨는 신안동과 구안동  
을 합해서 이조 五백년 동안  
에 十九명의 정승과 六명의 대  
제학(大提學)과 三명의 왕비를  
배출하여 단연고 그 경력을 빛  
내고 있다. 이 十九명의 정승  
은 구안동이 四명이고 신안동  
이 十五명인데 전체의 씨족 본  
관별로 볼 때 전주이씨(全州李  
氏) 二十二명의 다음 간다.  
이것만으로도 보아도 안동김씨  
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아우이신 지경(在景) 손자로

있었다는 사실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구안  
동'과 '신안동'의 역사를 크게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서 구안동김씨 세보에 나타나  
있다. 하여간 우리 구안동김씨  
는 충렬공의 아드님과 손자의  
대에서 크게 중흥(中興)을 이루  
어 이조의 중기인 인조 임금  
때 까지 세력을 떨쳤다. 아들  
다섯분 중에서 전법판서공(典  
法判書公 愼)과 찬성사공(贊成  
事公 忻)·문영공(文英公 恂)  
·지밀직사사공(知密直司事公  
恂)이 모두 당대에 뛰어났는데  
특히 혼(恂)은 장군으로서 충  
렬왕 때 합단적(哈丹賊)이 침입  
해오자 이를 섬멸하여 용맹을  
떨쳤고 문영공(文英公 恂)은  
문학과 예서(隸書)로 이름이  
났었다.

상서공신(尙書公道)의 아  
드님 대제학공(大提學公  
承用)과 중시랑 평장사공(中  
書侍郎 平章事公 承澤)과  
문영공(文英公 恂)의 아드  
님 문숙공 영돈(文肅公 永墩)  
부창 부원군 영우(福昌府院君  
永煦)등도 모두 명신(名臣)으로  
서 이름이 높았는데 그 중에서  
도 부창부원군의 후손이 이조의  
중엽까지 세력을 크게 떨쳐 사  
실상 우리 구안동김씨의 주축  
이 되었다.

이조 태종 임금 때 좌의정(左  
議政)을 지낸 의원공 사형(翼  
元公 士衡)은 부창부원군의 손  
자로서 고려 말에 삼사우사(三  
司右使)에 이르렀다가 一三九  
二년에 이성계(李成桂)를 왕으  
로 추대할 때 공을 세워 개국  
공신 一등이 되었으며 좌의정  
(左議政)으로 하여(下野)할 때  
까지 한번도 탄핵을 받은 일이  
없었다 하니 그 얼마나 원만한  
신성자(臣)란 것은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고려 말의 충신인 안렴사공  
사렴(按廉使 公 士廉)은 의원공  
의 중형이다. 안렴사공은 고  
려 공민왕 때 벼슬이 안렴사  
(按廉使)였는데 목은 이색(牧  
隱 李穡)·모은 정몽주(圃隱 鄭  
夢周)와 더불어 바른 말 잘하  
는 직간과(直諫派)로 이름이 높  
았다.  
(다음호에 계속)

이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아우이신 지경(在景) 손자로

## 族 譜 의 殿 堂

# 譜 典 出 版 社

鮮明한 印刷 · 完全한 製本!

大田市 東區 梧井洞 294-2番地(우편번호 300)  
電話: 大田(74-1641~3) · (72) 8675  
(서울事務所)(晝) 723-9713 · (夜) 914-0833

### 完備된 施設

最新全紙印刷機 · 國內唯一三菱自動製版機 · 菊版음세트機 · 드라이마트 自動紙型機 · 自動製本施設 一切完備, 最新鑄造  
11臺稼動 · 最新 清朝體, 各號字母 및 明朝體 各號字母 고딕체字母 一切 具備 · 靑打모도야機 10臺盛業中.....

安東金氏大宗會

理事 金 在 均

서울 東大門區 踏十里洞 四六四-二四三  
(신한연립) 一〇〇棟 二〇二  
電話 二二二-四二九三

자매 文具 代表

安東金氏大宗會 理事

金 昌 會

全國 文具 聯合會 九老 支會

支會長 金 泰 成

서울 特別市 九老區 禿山二洞 一〇五二-二二  
事務所 電話 八六二-八三四四  
自宅 電話 八〇三-一六三九一

### 廣告 接受 案內

本會報를 發刊함에 즈음해서서 各宗親들로부터 人事廣告의 要請이 있음으로 7월 24일 理事會 議에 提案한바 다음과 같이 揭載料를 徵收하기로 決議하였음을 通告합니다.

- 1號 = 7 cm × 1 cm 5,000 원
- 2號 = 7 cm × 2 cm 8,000 원
- 3號 = 7 cm × 3 cm 10,000 원
- 4號 = 7 cm × 4 cm 15,000 원
- 5號 = 7 cm × 6 cm 20,000 원
- 6號 = 7 cm × 7 cm 25,000 원
- 7號 = 9 cm × 7 cm 30,000 원
- 8號 = 9 cm × 11.5 cm 35,000 원
- 9號 = 9 cm × 23 cm 60,000 원

### 惡德 出版業者에 對한 警告

近來에 宗親들의 電話番號와 住所等을 探索해서 마치 우리 大宗會에 서 紹介나 斡旋·甚之於는 直營하 는 듯이 虛偽宣傳을 하면서 電話로 注文을 받아 書籍을 強賣하는 事實이 있는데, 이는 一部 惡德 出版業者의 所行이니 우리 宗親께서는 이 에 眩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